붓다 알아본 뱀왕 무짤린다…온 몸으로 붓다 외호

불교와 뱀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뱀은 십이지신의 여섯 번째 지신으로 남남동쪽을 지킨다. 남남동쪽 땅에서 시작하는 2025년, 우리는 한 해 동안 뱀의 외호를 받는다. 〈대방등대집경〉에 의하면 십이지신은 남섬부주의 사방 섬에 살고 있는 열두 동물을 말하며, 이들은 각각 보살의 화신으로 1년 열두 달에 걸쳐 서로 교대하면서 밤낮으로 인계(人界)와 천계(天界)를 살피며 교화하는 존재이다. 십이지신의 열두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보살의 화신이다.

경전 속의 뱀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 후 다섯 번째 7일 날이었다. 부처님은 무짤린다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었다. 그 때, 갑자기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에 의지해 살던 무짤린다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짤린다는 코브라뱀이었다. 무짤린다는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온몸을 감싸고 부채처럼 넓게 펼친 자신의 머리로 부처님의 머리 위를 받쳤다. 선정에 든 부처님에게 비바람과 추위가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무짤린다는 선정에 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비 한 방울, 바람 한 점 부처님을 지나가지 못했다. 또한 부처님을 살피는 무짤린다의 매서운 눈매에 온갖 짐승과 벌레들이 부처님 곁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7일 동안 몰아쳤던 폭풍우가 그치자 무짤린다는 부처님을 감쌌던 자신의 몸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무짤린다는 7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부처님을 지켰다.

선정에 든 부처님 7일 동안 외호
아파랄라 등 뱀왕 부처님께 귀의

여전히 염려와 경계의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는 무짤린다의 모습을 본 부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무짤린다에게 말했다. "법을 깨달아 마음이 기쁜 자는 홀로 있어도 행복하단다. 이 세상 어떤 생명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자는 행복하단다. 모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 버릴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부처님의 법을 받게 된 무짤린다 용왕은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부처님의 존재 의미는 모든 유·무정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었다. 그 위대함에 귀의한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섬기고 공덕을 지었던 것이다.

불경 속에는 무짤린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뱀왕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와트 지역의 뱀왕 아파랄라, 우루벨라의 찬다 등이 있다. 이 뱀왕들과 이를 숭배했던 토착신앙의 세력은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뱀왕들은 불법에 귀의할 생각이 없었다. 부처님은 금강역사를 시켜 동굴 속의 아파랄라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조복시켰다. 아파랄라는 과거부터 현생까지 폭우를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혔던 뱀이었다. 뱀의 몸을 받기 이전 생에서도 그는 비를 관장했던 바라문의 마법사였다. 뱀은 코끼리와 함께 인도에서 대표적인 물의 수호자로 불려왔다. 부처님을 폭풍우로부터 지켰던 무짤린다와 더불어 아파랄라도 물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물의 신으로 불렸던 뱀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새로운 소임을 받게 된다. 물은 생명의 번식을 포함해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공간'이다. 그 물 속은 뱀의 왕, 즉 용왕이 사는 곳이며, 불법을 간직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불법을 지키는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의 경전 속에서도 뱀의 용궁이 등장한다.

'독', 인간에게도 있어…긍정의 독으로

이렇듯 경전 속의 뱀은 일찍이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을 따랐던 선지식의 부류였다. 그렇다면 경전 밖에서의 뱀은 어떤 존재이며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십이지신 중 하나의 지신과 연결된다. 선택의 여지없이 부여받는 '띠'이다. 모두에 밝힌 것처럼, 그 각자의 '띠'는 다름 아닌 보살의 이름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보살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각자가 보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선 후기 민간에 알려졌던 당사주책에서는 뱀띠는 '용모가 단정하고 학업과 예능에 능하며 문무를 겸비'한 존재로 적고 있다. 뱀의 해이다. 모두에 적었던 것처럼 '뱀'의 기운으로 살아볼 일이다.

〈숫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수행자가 고행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뱀이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화를 삭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처럼 뱀은 기존의 습을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수행자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리고 일체의 세계로 들어서는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숫타니파타〉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다. "히말라야에 흐르는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렇듯 뱀은 '독'을 품은 존재이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경률이상〉에서는 뱀이 자신의 독으로 은혜를 갚는다. 11권에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보살이 큰 재판관이 되어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됐다. 부처님께 귀의한 그는 중생을 진심으로 대했다. 그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를 예언하고 배를 타고나간 그는 물에 떠내려가는 뱀과 여우와 사람을 구한다. 이후 보살은 구해준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자 뱀이 그 소식을 듣고 보살을 찾아가 약을 하나 건넨다. "내가 태자를 물어 독을 쓸 것이니, 이 약으로 태자를 구하고 보살의 목숨도 구하십시오." 뱀이 약속대로 태자를 물어 위태롭게 하자 왕은 태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는 령을 내린다. 보살은 뱀으로부터 받은 약을 왕에게 보냈고, 태자는 감쪽같이 병이 나았다. 이후 보살의 누명이 밝혀지고 보살은 벌을 면하게 된다. 이후 왕은 보살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을 진심으로 대하고 가난한 중생을 돕는다. 감화된 백성은 왕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고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현실서는 '독' 품은 무서운 존재
경전, 독으로 은혜 갚은 뱀 있어

현실 속에서 뱀은 무서운 동물이다. 바로 '독'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 속에서는 그 독이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독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그 '독'은 또 다른 독, 긍정의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뱀의 해를 맞아 생각해 볼 일이다. 과연 독을 지니고 사는 것이 뱀뿐일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야말로 '독' 하나 씩 품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 마디, 미움을 품은 마음 하나가 뱀의 독보다 더 독한 독일지도 모른다. 다툼을 부르고, 살인을 부르고, 전쟁을 부르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시끄러운 시절이다. 지금까지 품고 살았던 각자의 독이 올 한 해에는 또 다른 긍정의 독, 세상을 바꾸는 독이 되기를 기원한다.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벗어놓고 새로워지기를 기원한다. 뱀도 부처님을 알아보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다. 꼭 해야 할 일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았다. 허물을 벗는 뱀은 경전 속에서 수행자가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림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십이지의 뱀.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장지산 용암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파주시 혜음로742-28 ☎ (031)942-0265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